



청소년도 노인도 일자리에 관심

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18농림축산식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기금고갈 시기 3년 앞당겨

국민연금-사적연금 역할 분담 등 근본적 문제 해결로 신뢰 회복해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 졌다. '저부담·고급여' 구조 탓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추진을 논의 중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연구원 이발표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제도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최장훈·강성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측면과 고령화, 저성장 등 뉴노멀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인구, 경제 환경 모두가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에 당기 수지 적자에 이어 2057년에 고갈된다. 5년 전 발표한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저부담·고급여'라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기 기금소진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9.0%)는 OECD 평균인 18.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소득대체율(39.3%)은 OECD 평균인 40.6%와 비슷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재정안정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40년의 합계출산율을 1.42명으로 가정했으나 4차에서는 1.38명으로 0.04명 낮아졌다. 반대로 기대수명은 2040년 남성 84.7세, 여성 89.1세로 3차에 비해 각각 1.3세, 0.9세 높아졌다.

또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임금상승률, 낮은 금리 등 경제변수는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낮은 기금투자수익률도 영

향을 미쳤다. 다만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2.8%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OECD 평균은 11.7%, 일본 25.8%, 미국은 15.4% 등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여전히 재정 불균형 상태에 있지만 소진 시점이 약 40년 이후여서 그 사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불안정을 완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재정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해외의 주요국은 보험료 인상, 급여액 감액,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극적 기금운용, 정부의 재정보조,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안정 방안을 활용 중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재정안정화 방안은 민영보험의 원리와는 다른,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를 고려했다"며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이란 근본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보험료율 인상, 급여액 감액 등 국민연금제도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독일은 보험료율을 30년에 걸쳐 2.7%포인트 올렸다.

또 보고서는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적연금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어려우므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공사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층 체계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해외의 재정안정화 방안 : 보험료율 인상 또는 급여액 감소>

/보험연구원

구분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한국
보험료율	19.3%(2000년)	16.5%(1994년)	8.4%(1969년)	3.6%(1966년)	13.0%(1990년)	3.0%(1988년)
	→	→	→	→	→	→
	18.7%(2015년)	13.9%(2004년)	12.4%(1990년)	6.0%(1997년)	→	6.0%(1993년)
	→	→	→	→	→	→
	22.0%(2030년)	18.3%(2017년)	15.18%(위원회 2018년 제안)	9.9%(*2003년)	18.5%(1999년)	9.0%(1998년)
급여	-	-	보험료 15.18% 상향의 대안으로 급여 17% 감액(위원회 2018년 제안)	-	-	소득대체율 70%(1988년)
	-	-	-	-	-	→ 40%(2028년)

## 火車 오명에도 식지 않는 수입차 열풍

# 과시욕이 만든 비정상적 車 문화

>> 1면 '비정상 한국경제...'서 계속

폭스바겐, 4천대 중 3천대 사전예약 나머지 1천대는 1분만에 계약완료

실제로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달 10일 '파사트 TSI'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신촌 폭스바겐 자동차전시장에서 만난 직원 B씨는 "파사트 TSI는 총 4000대가 들어왔는데 3000대가 사전예약으로 모두 팔렸다"며 "남은 1000대는 카카오토어로 계약을 했는데 1분 만에 완료됐다"며 수입차에 대한 열기를 전했다.

이곳 대리점 직원에 따르면 당시 '파사트 TSI'의 가격은 금융리스로 29% 할인해 2900만원, 할부는 18% 할인돼 3300만원까지 내려갔다.

전시된 차를 둘러보던 고객 A씨



폭스바겐 신촌 대리점에 전시된 파사트 TSI.

(61)는 "수입자동차 선택의 주된 이유는 '안전'과 '값싼 연비'에 있다. 승용차도 디젤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최근 BMW 화재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B(28)씨는 "아직 자동차를 장만할 형편은 못되지만 나중에 돈이 모이면 수입차를 구입할 생각"이라며 "BMW나 폭스바겐 등 업체들이 수십년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무시 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2014년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의해 가스가 재활용되도록 차량을 조작해 유로5 기준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게 적발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지난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되며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외제차'에 대한 선망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약간의 마케팅 활동만 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수입차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수입차를 선택하는 고객 대부분이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파사트 TSI의 경우 가격을 낮춤으로써 높은 가성비로 국내 세단과의 경쟁력을 한 층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364@metrosoul.co.kr



70TH ANNIVERSARY  
명지대학교

## [나눔]

나눔은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과 창조의 70년!  
임원의 대학으로 100년!

명지대학교는  
섬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를 꿈꿉니다



**명지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원서접수 : 2018. 9.11.(화) 10:00 ~ 9.14.(금) 17:00  
모집단위 :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지원자격 :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면서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만30세 이상 성인(등록금의 50% 또는 30% 장학금 지원 혜택)  
입시문의 :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02)300-1572  
\* 자세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 입시 홈페이지 http://future1.mju.ac.kr 참조

설립정신 | 하나됨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상근